

멘토기관 선택과 팀 구성 계획

어느 기관에 낼지 정하고, 팀 이야기 한 문단을 만들어서 나가는 60분

정윤섭 Younsub Jung

(주)비긴메이트 창업자 · 대표이사 중기
부 · 문체부 · 복지부 · 산업부 평가위원

2026.9.7(월) 20:00~21:00



오늘 가져갈 것은 세 가지입니다

나머지는 다 이 세 가지를 위한 설명입니다

01

기관을 **먼저** 고른다

신청서를 쓰기 전에 기관 화면을 열고, 그 기관이 뭘 보는지 읽는다

02

트랙에 따라 **쓸** 내용이 다르다

일반·기술트랙은 시장과 차별성, 로컬트랙은 지역 자원

03

팀은 「없다」가 아니라 **계획**으로 쓴다

지금 가진 것 → 빠진 역할 → 언제 어떻게 채울지 → 이미 한 일

오늘 순서

네 덩어리 + Q&A

구간	시간	하는 일
1. 기관을 먼저 고른다	5~20분	신청 화면에서 그 기관 지표를 읽는 방법
2. 트랙별로 다르게 준비한다	20~32분	일반·기술트랙 vs 로컬트랙, 각각 무엇을 쓸지
3. 팀 구성 계획을 만든다	32~44분	먼저 채울 역할 하나 정하고 사람 찾는 경로까지
4. 문항에 옮겨 쓴다	44~50분	네 단계 문단과 제출 전 점검
Q&A	50~60분	질문 응대

중간에 두 번, 채팅에 직접 적어보시는 시간이 있습니다

기관을 먼저 고른다

신청서보다 기관이 먼저입니다 · 5~20분

대부분 아이템 설명부터 씁니다. 그리고 기관을 고를 때
쯤 신청서가 이미 굳어 있습니다.

화면 순서와 준비 순서는 다릅니다

오늘 하는 일은 3단계를 2단계보다 먼저 여는 것입니다

화면이 시키는 순서



분야 → 아이디어 작성 → 기관 선택 → 제출

준비하는 순서



분야 → 기관 지표 먼저 읽기 → 그 기준에 맞춰 아이디어 작성 → 제출

신청 화면 4단계 — ① 분야 선택 ② 아이디어 작성 ③ 멘토 기관 선택 ④ 내용 확인 및 제출

실제 입력 항목과 순서는 modoo.or.kr 신청 화면에서 확인 · 2026.9 기준

그 기관이 뭘 보는지는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

공고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

공고문 원문

「멘토기관별 중점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(기관별 평가 지표 공개)」

신청 화면에서 기관을 누르면 오른쪽에 그 기관의 선발 기준이 펼쳐집니다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511호 · 2026.9 기준

첫 관문은 책임멘토 3인의 서면 평가입니다

붙으면 그 멘토와 1:1 멘토링을 네 번 받습니다 – 이게 이 프로그램의 실제 값입니다

3인

책임멘토 서면 평가 발표로 보충할 기회가 없습니다 – 적
힌 문장이 전부

4회

1:1 멘토링(내외) 대면이 기본이지만 비대면으로도 진행
가능 – 기관과 협의

네 번을 제대로 받으면 신청서 한 장보다 남는 게 훨씬 많습니다 – 다만 **시간은 실제로 듭니다**. 일정을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

신청서를 쓰기 전에, 15분이면 되는 일

기관을 고르는 게 아니라 기준을 읽는 겁니다

1

3단계 화면부터 연다

신청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
을 고르고 후보 서너 곳을 눌러 본다



2

세부항목을 그대로 옮긴다

그 기관 화면에 뜬 항목을 종이에 적는다



3

쓸 문장이 있는지 표시한다

항목마다 내 아이템으로 쓸 수 있는
문장이 있는지 ○·×

×가 셋을 넘으면 – 신청서보다 그 항목을 채울 일을 먼저 하십시오

후보를 남길지 뻔지, 세 가지로 봅니다

기준은 「자연스럽게 설명되는가」 하나입니다

기준	이렇게 확인합니다
① 설명이 되는가	그 기관 세부항목으로 내 아이템 강점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가
② 분야가 맞는가	기관 카드에 적힌 주요 지원 분야가 내 아이템과 어긋나지 않는가
③ 멘토링 4회를 소화할 수 있는가	일정을 낼 수 있는가 – 대면이면 이동 시간까지, 비대면은 기관과 협의

지원율은 마지막 참고값으로만

기관 카드의 지원율은 접수 마감까지 계속 바뀝니다. 낮다고 유리하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.

지금, 채팅에 후보 2~3곳을 적어보세요

기관명과 「고른 이유」를 한 줄씩 · 3분

후보 1

후보 2

후보 3

억지로 끼워 맞춰야 하는 기관이면, 후보에서 빼는 것이 낫습니다

1부 정리

한 문장으로

기관은 마지막에 고르는 칸이 아니라, 신청서를 쓰는
기준입니다.

□ 3단계 화면을 열어 봤다

□ 세부항목을 옮겨 적었다

□ 후보 2~3곳을 남겼다

트랙별로 다르게 준비한다

일반·기술트랙과 로컬트랙은 다른 시험입니다 · 20~32분

트랙 선택은 아이템 선택이 아니라 **평가 기준 선택**입니다.

두 트랙, 이렇게 다릅니다

이 한 장만 이해하면 2부는 끝입니다

	일반 · 기술트랙	로컬트랙
평가지표	기관마다 다름 – 내가 고른 그 기관 화면을 읽어야 함	전 기관 공통 4축 하나 – 미리 알 수 있음
가장 많이 묻는 것	차별성 · 문제 정의 · 실행 가능성 · 시장	창업 준비도 · 차별성 · 지역적 가치 · 성장 가능성
지역 관련	지표에 지역을 적어 둔 기관은 소수	4축 중 하나 – 배점의 4분의 1
준비 방법	기관을 먼저 고른 뒤 그 기준에 맞춰 쓴다	공통 4축을 하나씩 채운다

「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멘토기관별 평가지표」(일반·기술트랙 / 로컬트랙) · 2026.9 기준 – 강의 직전 modoo.or.kr 최신본 재확인

일반 · 기술트랙 – 기관마다 지표가 다릅니다

그래서 「이 사업의 지표」를 외우는 게 아니라, 그 기관 화면을 읽는 겁니다

01

많이 쓰이는 3축

도전의 진정성 → 사회적 가치 → 아이디어 구체성. 공공기관·협회 계열에서 특히 많습니다

02

성실성 계열

성실성 → 성장성 → 우수성. 멘토링 참여도와 자금 활용까지 지표에 넣은 기관들입니다

03

자체 설계

문제·고객 이해도, 창업가 정신, AI 적합성 등 기관이 직접 만든 축. 절반이 넘습니다

축 이름만 보고 준비하면 절반은 빗나갑니다 – 세부항목까지 읽어야 합니다

「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멘토기관별 평가지표」(일반·기술트랙 / 로컬트랙) · 2026.9 기준 – 강의 직전 modoo.or.kr 최신본 재확인

그래도 겹치는 건 있습니다 – 여섯 개

기관 지표를 전부 훑으면 결국 이 여섯 개를 묻습니다

1	기존 것과 무엇이 다른가	차별성 · 독창성 · 경쟁 우위	82%
2	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	문제 정의 · 해결 필요성	76%
3	지금 할 수 있는가	실행 · 검증 가능성, 단계별 계획	76%
4	시장이 큰가 · 커지는가	시장성 · 확장성	68%
5	진짜 할 사람인가	창업 의지 · 진정성	65%
6	돈은 어떻게 버는가	수익모델 · BM	55%

퍼센트는 이 질문을 지표에 적어 둔 기관 비율입니다(기관 수 기준, 배점 아님)
「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멘토기관별 평가지표」(일반·기술트랙 / 로컬트랙) · 2026.9 기준 – 강의 직전 modoo.or.kr 최신본 재확인
멘토기관 선택과 팀 구성 계획

일반 · 기술트랙은 이렇게 씁니다

네 줄만 지키면 됩니다

차별성은 「없다」가 아니라 「지금은 이렇게 한다」로

대체 수단을 실제 이름으로 적고, 그 방법이 못 하는 지점 한두 개만 짚습니다

시장은 숫자와 출처로

대상 규모 · 발생 빈도 · 지출 금액 중 하나 이상. 출처를 못 적을 숫자는 빼는 게 낫습니다

실행 가능성은 「지금까지 한 일」로

인터뷰 12건, 목업 5장, 예약 명단 — 작아도 실제로 한 일이면 들어갑니다

팀은 빠진 역할과 채울 시점으로

「혼자 하고 있습니다」로 끝내지 않습니다. 4부에서 문단으로 만듭니다

로컬트랙 – 공통 4축, 미리 다 알 수 있습니다

기관별로 갈리지 않습니다. 이 표가 전부입니다

평가지표	세부항목
창업 준비도	아이디어의 개발동기(신청자 경험과 아이디어 연관성 등) 창업 의지 및 준비 정도(시제품 제작, 관련 자격 보유 등)
창업 아이디어	창업 아이디어의 차별성 / 창업 아이디어의 시장 경쟁력
지역적 가치	지역 자원 활용도 /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치창출 가능성
성장 가능성	향후 아이디어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창업 아이디어의 실현 및 성장 가능성

네 축이 여덟 문장 – 여덟 문장만 준비하면 로컬트랙은 준비가 끝납니다

「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멘토기관별 평가지표」 (일반·기술트랙 / 로컬트랙) · 2026.9 기준 – 강의 직전 modoo.or.kr 최신본 재확인

로컬트랙의 승부처는 「지역적 가치」입니다

네 축 중 하나 – 배점의 4분의 1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

1/4

지역적 가치

여기에 적을 게 없으면 시작부터 한 축을 비웁니다

지역 자원 활용도 – 그 지역의 무엇을 쓰는가. 원재료, 공간, 인력, 상권, 관광객, 지역 기업.

지역 중심 가치창출 – 그 지역에 무엇이 남는가. 매출, 일자리, 방문객, 지역 기업과의 거래.

「서울에서도 되는 사업」을 로컬트랙에 내면 이 축에서 막힙니다

「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멘토기관별 평가지표」(일반·기술트랙 / 로컬트랙) · 2026.9 기준 – 강의 직전 modoo.or.kr 최신본 재확인

로컬트랙은 이렇게 씁니다

네 줄만 지키면 됩니다

동기는 그 지역과 나의 연결로

살았는지, 일했는지, 그 지역에서 문제를 겪었는지. 지역과 나의 접점이 개발동기입니다

준비 정도는 「시제품 · 자격」으로

지표에 예시가 적혀 있습니다 — 시제품 제작, 관련 자격 보유. 있으면 반드시 적습니다

지역 자원을 이름으로 적는다

「지역 특산물」이 아니라 그 품목 이름, 그 시장 이름, 그 협동조합 이름으로

남는 것을 숫자로 적는다

지역 매출, 채용 인원, 거래할 지역 업체 수 — 규모가 작아도 숫자로

같은 아이템, 트랙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

예시 아이템: 결제 내역을 자동으로 모아주는 소상공인 정산 앱

일반 · 기술트랙

「1인 사업자가 월말 정산에서 결제 자료가 흩어져 **건당 40분** 을 쓰고 있습니다. 기존 회계 프로그램은 배달앱 정산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. 저희는 그 채널까지 자동 취합해 **건당 3분**으로 줄입니다. 대상은 **〇〇만 명** 이고, 인터뷰 12건 중 9건에서 유료 사용 의사를 확인했습니다.」

차별성 · 시장 · 실행 근거 순으로

로컬트랙

「〇〇시 **△△시장** 에서 3년간 가게를 운영하며 월말 정산에 이틀을 썼습니다. 같은 시장 상인 **12분** 께 여쭙보니 **9분**이 같은 방식이었습니다. **△△상인회**와 협력해 시장 내 **200개 점포**부터 적용하고, 시장 회계 대행 인력 **2명**을 지역에서 채용할 계획입니다.」

지역 자원 · 지역에 남는 것 순으로

예시 문장은 강의 설명용 창작 문구이며 실제 신청서가 아닙니다

그래서 어느 트랙에 낼까요

두 질문으로 정해집니다

지역 자원을 이름으로 적을 수 있는가?



예

로컬트랙 – 4축 중 하나를 이미 채운 상태로 시작합니다

아니오

일반 · 기술트랙 – 시장과 차별성으로 승부합니다

지역을 억지로 붙이지 마세요. 심사자가 그 지역을 아는 사람입니다

2부 정리

한 문장으로

일반트랙은 기관 화면을 읽고 쓰고, 로컬트랙은 여덟 문장을 채우면 됩니다.

팀 구성 계획을 만든다

먼저 채울 역할 하나를 정합니다 · 32~44분

실행 역량 칸에 「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」 한 줄만 적
으면,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읽힙니다.

혼자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

예비창업자를 80% 내외로 뽑는 사업이고, 팀원 명수는 선택 항목입니다

80%

내외를 예비창업자로 선발 혼자인 분이 다수입니다

「팀원 없음」 이 기 본값

팀원 명수는 드롭다운 선택 항목

불리한 건 혼자라는 사실이 아니라, **계획을 안 쓰는 것**입니다

공고 제2026-511호 · 2026.9 기준 — 선발 비율은 modoo.or.kr에서 재확인

기관 지표에 팀이 직접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

고른 기관이 이런 표현을 쓰면, 팀 이야기는 「추가 설명」이 아니라 배점입니다

01

창업자(팀)의 실행역량 및 준비도

관련 경험 및 이해도, 준비도 및 실행
의지 — 대학 기술지주 계열

02

창업팀의 전문성 및 실행역량

산업 협회 계열이 지표에 적어 둔 표현

03

초기 구현 역량

현재 보유 자원으로 단기간 내 구현 ·
검증이 가능한지

이 칸이 묻는 건 「팀이 완성됐는가」가 아니라 「지금 상태를 아는가」입니다

「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멘토기관별 평가지표」 · 2026.9 기준 — 강의 직전 modoo.or.kr 최신본 재확인

먼저 채용 역할 하나만 정합니다

전부 필요하다고 쓰면 아무것도 안 정해진 것과 같습니다

1

**커버 못 하는 기능을
적는다**

개발 · 기획 · 디자인 · 영업
중 혼자 하기 어려운 영역



2

**가장 먼저 막히는 것
하나를 고른다**

지금 단계에서 아이템을 앞
으로 밀려면 무엇이 급한가



3

합류 형태를 정한다

공동창업자로 갈지, 프로젝
트 단위로 먼저 검증할지



4

시점을 붙인다

「추후 채용 예정」은
계획이 아닙니다

지금, 이 표를 채워보세요

3분 · 「불가능」 중 가장 먼저 막히는 것 하나에 동그라미

기능영역	지금 커버 가능?	없으면 무엇이 막히나
개발	☐ 가능 ☐ 불가능	
기획	☐ 가능 ☐ 불가능	
디자인	☐ 가능 ☐ 불가능	
영업 · 마케팅	☐ 가능 ☐ 불가능	

동그라미 하나가 오늘 신청서에 쓸 「빠진 역할」입니다

사람을 찾기 전에, 자리를 먼저 적습니다

「개발자 한 명 필요합니다」로는 아무도 못 찾습니다

자리는 목표에서 역산해 나옵니다

- ① 올해 목표를 한 줄 적는다 ② 그걸 못 하는 이유를 적는다 — 그 이유가 자리 이름 ③ 그 사람의 첫 달 업무를 적는다
- ③이 안 써지면 아직 뽑을 때가 아닙니다

직군 이름 아래 네 칸을 더 적습니다

직군별 업무 리스트 / 필요 역량 / 담당 업무 / 지원 자격

필수와 우대를 나누세요 — 필수가 열 줄이면 아홉 개 되는 사람도 안 옵니다

「프로그래머 모집」 — 판단할 근거가 없어 그냥 넘어갑니다

「React.js 기반 프론트엔드 개발자」 — 3초면 자기 얘기인지 압니다

공동창업자와 프로젝트 협업, 신청서에서는 구분해 씁니다

둘 다 정상적인 선택입니다

	공동창업자	프로젝트 단위 협업
관계	장기 · 정식 합류	단기 · 검증 목적
지분 · 보상	지분 또는 정식 보상 구조로 명시	건별 보수, 지분 미확정 가능
신청서 표현	역할과 지분 · 기여를 함께	「검증 단계」임을 명시
적합한 시점	방향에 확신이 선 이후	방향을 아직 검증 중일 때

단계에 맞지 않게 서둘러 지분을 나눈 것보다, 단계별로 설계해 둔 쪽이 신중하게 읽힙니다

사람은 이 여섯 경로 중 하나에서 만납니다

신청서에는 어느 경로를 쓸지까지 적습니다

01

온라인 커뮤니티

직군별 커뮤니티 · 포럼. 기술 난이도가 높은 자리

02

팀빌딩 플랫폼

사업자등록 전에도 쓸 수 있는 경로

03

대학 · 부트캠프

막 배운 사람. 초기 팀에 현실적

04

기존 네트워크 소개

가장 빠르지만 인맥 밖은 안 나옴

05

해커톤 · 공모전

짧게 같이 일해 보고 판단

0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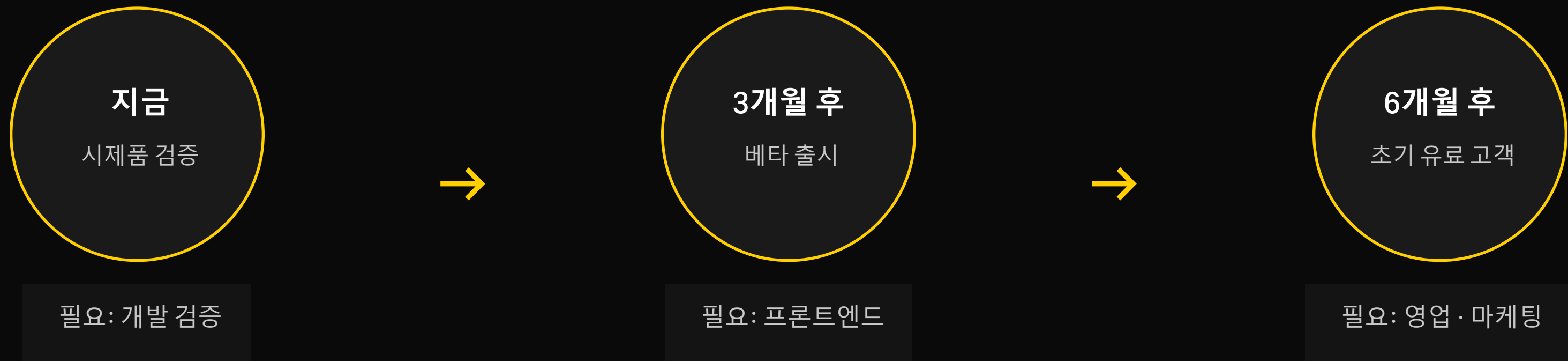
외주 · 프리랜서

한 건 해 본 뒤 합류 의사 확인

기술 난이도가 높으면 전문 채널, 비전 공감이면 먼저 아는 사람 소개

설득은 비전이 아니라 좌표에서 나옵니다

상대는 「언제 무슨 역할로 들어가면 되는지」를 찾습니다



「우리는 이 시장을 바꿉니다」보다 **이 그림 한 장**이 사람을 움직입니다

3부 정리

한 문장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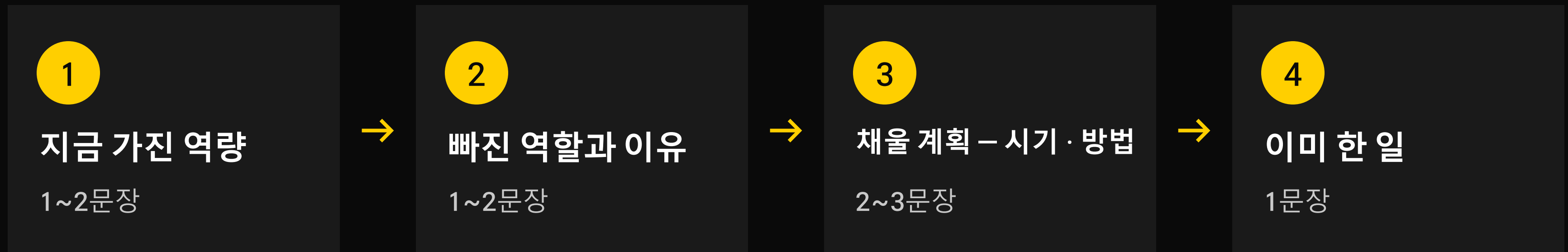
지금 가장 먼저 막히는 역할 하나 와, 그 사람을 만날 경
로 하나만 정하면 됩니다.

문항에 옮겨 쓴다

네 단계 문단으로 만듭니다 · 44~50분

실행역량 문항은 이 네 단계로 씁니다

순서를 바꾸면 같은 내용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



네 문단, **600~1,000자** – 이 순서면 분량이 넘치지 않습니다

입력 칸은 2,000자까지 들어가지만 권장 분량은 문항별로 다릅니다 · 2026.9 기준

예시 ① 일반 · 기술트랙

시장과 실행 근거가 앞에 옵니다

- ① **가진 역량** 저는 서비스 기획을 5년간 담당하며 이번 아이템의 고객이 겪는 문제를 직접 다뤄 봤고, 시제품 화면 설계와 사용자 인터뷰 12건을 직접 진행했습니다.
- ② **빠진 역할** 현재 팀은 저 한 명이고, 기획과 고객 검증은 제가 하지만 앱 구현을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.
- ③ **채울 계획** 1라운드 기간인 ○월까지 프론트엔드 개발자 1인을 프로젝트 단위로 합류시킬 계획입니다. 개발자 커뮤니티와 팀빌딩 플랫폼 두 곳에 모집글을 올렸고, 시제품이 나온 뒤 △월에 정식 합류 여부를 정합니다.
- ④ **이미 한 일** 디자인은 ○○님과 두 차례 협업해 화면 시안 5종을 만들었고, 인터뷰 12건 중 9건에서 유료 사용 의사를 확인했습니다.

강의 설명용 창작 문구이며 실제 신청서가 아닙니다 — 실제로는 600~1,000자 권장

예시 ② 로컬트랙

같은 네 단계인데, 지역과 지역 인력이 들어갑니다

- ① **가진 역량** ○○시 △△시장에서 3년간 가게를 운영하며 월말 정산 문제를 직접 겪었고, 같은 시장 상인 12분을 인터뷰했습니다.
- ② **빠진 역할** 현장 수요는 제가 확인할 수 있지만, 결제 데이터를 연동할 개발 인력이 없습니다.
- ③ **채울 계획** ○월까지 지역 대학 창업지원단과 부트캠프 수료생 풀을 통해 개발 인력 1인을 확보하고, 시장 회계 대행 인력 2명은 △△상인회 추천으로 지역에서 채용할 계획입니다.
- ④ **이미 한 일** △△상인회와 협의해 시장 내 20개 점포에서 수기 정산 자료를 받아 시범 집계를 마쳤습니다.

③④에 지역 이름과 지역 인력이 들어가면 「지역적 가치」 축까지 같이 채워집니다

강의 설명용 창작 문구이며 실제 신청서가 아닙니다

이 칸에서 가장 흔한 실수 셋

「우수한 팀원을 추후 채용할 예정입니다」에 빠진 것

01

시점이 없다

「추후」는 계획이 아닙니다. ○월까지라고 적으면 그 자체가 실행 의지의 근거가 됩니다

02

방법이 없다

어느 채널에서 만날 것인지. 여섯 경로 중 하나만 적어도 달라집니다

03

기준이 없다

「우수한」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씁니다

문장을 늘리는 게 아니라 빠진 정보를 넣는 겁니다

제출 전, 이 여섯 줄만 확인하십시오

팀 · 실행역량 칸에 한정한 점검표입니다

- 지금 가진 역량을 직무 경험으로 한두 문장 적었다
- 빠진 역할을 이름으로 적고 왜 지금 필요한지 붙였다
- 채용 시점을 「○월까지」로 적었다
- 어느 경로로 만날지 이름으로 적었다
-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기준을 적었다
- 이미 한 일 하나를 마지막 문장으로 붙였다

임시저장이 있고 마감 전까지 고쳐서 다시 낼 수 있습니다 — 일단 제출해 두고 다듬으십시오

① 기관을 먼저 고른다 ② 트랙에 맞게 쓴다 ③ 팀은 계획으로 쓴다



Q&A

자주 나오는 질문 세 가지 · 50~60분

Q1. 여러 멘토기관에 동시 지원해도 되나요?

공고 원문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

중복 · 동시 지원 관련 조항은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어, 제가 여기서 단정하면 잘못된 정보가 됩니다

확인 위치

modoo.or.kr 공고문에서 「중복 지원」 또는 「동시 지원」 조항

대신 이걸 확실합니다

기관을 여러 곳 검토하는 것과, 한 곳을 골라 그 기준에 맞춰 쓰는 것은 별개입니다. 후보는 여러 곳, 문장은 한 기준으로.

Q2. 팀원이 아직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쓰나요?

「팀원이 없습니다」로 끝내지 않습니다

1인 체제는 감점 요소가 아닙니다. 계획이 없는 게 감점 요소입니다

오늘 만든 네 단계를 그대로 씁니다

가진 역량 → 빠진 역할 → 언제 어떤 경로로 → 이미 한 일

이미 한 일이 작아도 붙입니다

인터뷰 몇 건, 목업 몇 장, 상담 기록 – 앞의 계획이 말이 되게 해 줍니다

Q3. 일반트랙과 로컬트랙, 어디로 넣어야 하나요?

질문 하나로 갑니다

지역 자원을 이름으로 적을 수 있는가 - 품목명, 시장명, 협동조합명, 지역 기업명

적을 수 있으면 로컬트랙

4축 중 하나(지역적 가치)를 이미 채운 상태로 시작합니다

못 적으면 일반 · 기술트랙

지역을 억지로 붙이면 그 지역을 아는 심사자에게 표가 납니다

감사합니다

정윤섭 · younsubjung.com

(주)비긴메이트 창업자 · 대표이사 중기부 · 문체부 · 복지부 · 산업
부 평가위원

다음 4회차 예고

AI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

접수 마감 2026.9.17(목) 16:00 마감 전 modoo.or.kr에서 공
고 최신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



강의 자료 · 문의
younsubjung.com